

## 클래스프 유지장치와 Konus Telescopic 유지장치를 이용한 엇갈린 교합의 수복 증례

김민정\*, 계기성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엇갈린 교합이란 상하악에 잔존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두감합위를 잃고 있는 증례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엇갈린 교합을 가진 환자의 경우 상하악간의 대향관계가 치아와 점막의 관계이므로 치근막과 점막의 피압 변위량의 차이에 의해 교합시 의치의 불안정한 비틀어짐과 변위를 유발하게 된다. 통상적인 국소의치의 설계와 제작으로서는 기능회복이 쉽게 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잘되어 있더라도 장기적인 경과시 지대치 동요의 증가 및 탈락, 잔존 치조제의 흡수 촉진, 의치의 파손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부분 무치악 환자의 경우 클래스프, 어태치먼트, telescopic crown을 이용한 가철성 국소의치를 제작할 수 있다. 일반적인 클래스프의 경우 역사도 깊고 사용 빈도도 높지만 엇갈린 교합에 적용하기에는 유지와 지지가 부족하고 클래스프 자체의 강도도 약하다. telescopic crown은 지대치의 고정효과, 변연 치은의 자정성 부여, 의치의 움직임의 억제 및 보철물의 견고성 등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후 엇갈린 교합은 상악의 전방 무치악부에 하악의 잔존치가, 하악의 양측 무치악부에 상악의 잔존치가 물려 들어가는 듯한 증례로 상악의치의 전방에 대한 회전침하를 방지하기 곤란하고, 상악 전치부에 치조제 이상흡수를 일으키기 쉬우며 flabby gum의 발생과 의치의 파절을 일으키기 쉽다. 좌우 엇갈린 교합 또한 잔존치에 대항하는 치조제의 흡수가 뚜렷하고, 무치악 치조제의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본 증례는 전후 엇갈린 교합을 가진 환자와 좌우 엇갈린 교합을 가진 환자를 Konus와 coping telescope crown, 견고한 지지기능을 가진 클래스프 그리고 치근 어태치먼트를 유지장치로 하는 가철성 국소의치를 이용하여 수복하였다. 전후 엇갈린 교합을 가진 환자의 경우 상악은 모든 잔존 치아에서 최대의 지지와 유지를 얻도록 하고 동시에 심미성을 고려하여 Konus telescope RPD로 제작하였다. 하악의 경우 기존 보철물을 제거한 부분에는 Konus telescope, 자연치를 그대로 이용하는 지대치에는 cap clasp 유지장치를 적용하여 이탈과 침하 및 수평적인 움직임에 저항하도록 하였다. 좌우 엇갈린 교합의 환자의 경우 상하악 지대치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엇갈림 양상과 점막지지성이 강하여 상하악 의치의 상호 회전 변위와 회전 이탈을 저지하기 어려웠다.

상악의 경우 구치부의 유지장치로는 클래스프를 이용하였고 모든 잔존 치아에 명확한 레스트를 설정하였다. 전치부의 경우 치근대 치관비를 개선하고 심미성을 위하여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하였다. 하악의 경우 총의치 인상채득에 준하여 기능인상을 채득하였고 하나 남은 구치부의 치아가 견고하였으므로 coping telescope를 이용하

여 수직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측방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엇갈린 교합 환자의 구체적인 치료방법은 각 증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이지만 잔존치아와 치조제의 지지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엇갈린 교합에서 보이는 의치의 회전으로 인한 의치의 동요와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